



"외삼촌 사는 골에 가지도 말랬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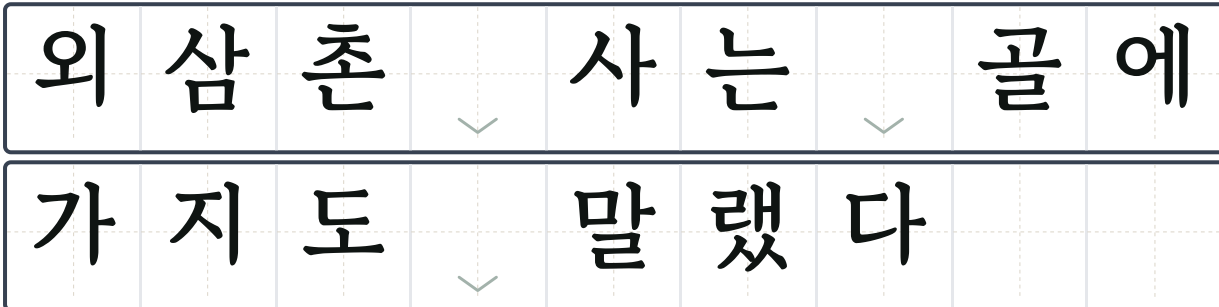
뜻: 엄마의 남자 형제인 외삼촌과 조카의 사이는 겉으로 보기엔 가까운 친척 같지만, 실제로는 서로 관심이 없고 서먹서먹해서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관계 · 소원 · 무관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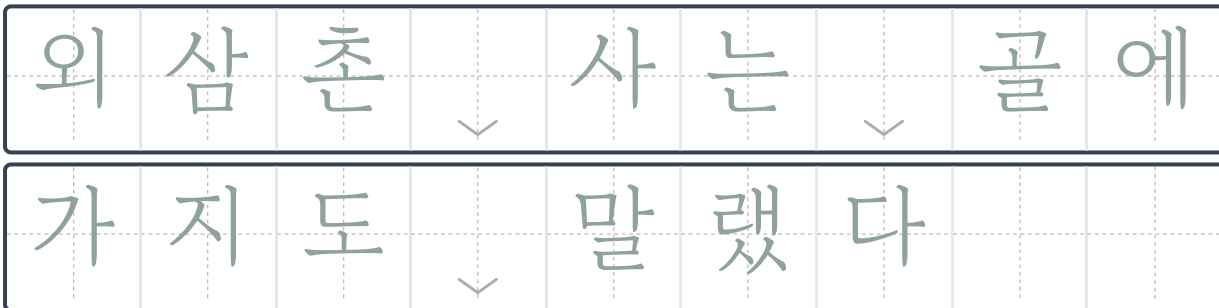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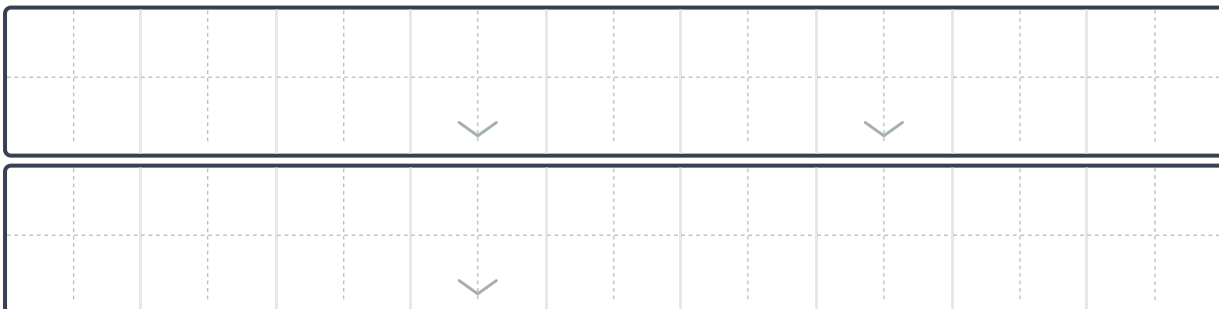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오 사 촌] [사 나] [가 오] [가 자 다] [모 르 다]

웹에서 보기

